

# 은행주, 이슈에도 과열 조짐... 주가 조정으로 '숨고르기'

KRX은행지수, 이달 들어 8% 올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  
예상보다 상회 강도에도 주가 급등  
올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며 급등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일 대비 1800원(2.36%) 내린 7만 44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우리금융지주(-2.10%), 신한지주(-1.31%), 하나금융지주(-0.16%) 등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

앞서 지난주 은행주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구제에 투입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 우려에도 강세를 기록했다.

특히 KRX은행지수는 이달 들어 8% 가량 올랐다. 개별종목으로도 KB금융



4대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각사

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각각 7만 8600원, 6만46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신한지주도 오버행(잠재적매도물량) 이슈 해소로 같은 날 6년 만에 주가가 5만원대로 올랐으며,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5일 장중 1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은행주의 시가총액 순위도 줄줄이 상승했다. KB금융은 지난 15일 증가 기

준으로 시가총액 30조747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7위에서 10위로 올라섰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28위에서 이달 21위(18조1553억원)로 상승했으며, 신한지주(25조4329억원)도 17위에서 15위로 순위가 올랐다.

업계에선 은행주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구조 발표된 감독당국의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

준안이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급등했다"며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전주에도 은행주를 각각 1500억원 이상씩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ELS 배상 이슈 등 강한 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연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다소 과열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올해 실적에 ELS 자율배상

에 따른 손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도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손실 규모는 KB금융 약 2조3000억원, 신한지주 9000억원, 하나금융 700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최종 배상비율이 30~40%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KB금융은 7000억~9000억원, 하나금융은 2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원은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0.40배 내외에 불과해 중장기 매력은 여전히 높지만 ELS 배상, 환율 상승 등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비율 추가 개선 없이는 큰 폭의 주주환원율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기업 밸류업'에 몰렸던 예탁금, 8일 만에 4兆 증발

신용투자자, 코스피·코스닥 최고치  
MMF 설정액, 일주일간 2700억 줄어  
"예탁금 감소, 증시 상승세 끝난 거 아냐"

국내 증시의 대기자금이 8거래일 사이 4조원 이상 증발하면서 조정국면 진입 경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시 변동성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잔고는 53조 4824억원으로 지난 4일 57조8852억원에 비해 약 4조4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훈풍으로 몰렸던 투자자 예탁금이 약 8거래일만에 증발한 모습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

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본다.

반면, 신용투자자잔고는 증가세를 타고 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용자잔고가 늘수록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초(1월 2일 기준) 17조537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지난 14일 기준 19조253억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신용투자 잔액은 코스피는 10조1713억원, 코스닥은 8조8539억원으로 모두 연중 최고치다. 다만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9816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5일 기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도 최근 일주일간 2700억원이 줄어들었다. MMF는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기업 어음(CP) 등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으면서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동일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5700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3000억원 증가하면서 명암이 갈렸다.

다만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투자자예탁금 자체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15일 겪었던 주가 조정도 기술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예탁금이 증시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증시 상승세가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시 상승 시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꾸준히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추세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18일에는 코스피지수가 전장보다 0.79% 오른 2687.90에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회복했다.

반면, 김경훈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경기확장 모습은 실제 펀더멘털의 개선이라기 보다 '기저'에 의한 기술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올해 시간이 경과돼 갈수록 국내 경기사

이들의 재차 둔화 전환 시각의 지속이 유지된다"며 "선행경기지표 쪽에서의 반락 시점을 올 상반기 말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올해의 관건은 후행경기지표의 실질적인 추가 하락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증시 대기성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7만3797.97달러(약 9820만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에 황 연구원은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위험자산에 속하고, 비트코인 시장 상승세가 뚜렷한 시기인 만큼 증시 대기성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투자자의 교집합은 존재하겠지만 각 시장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프로젝트 펄스' 출범... 토큰증권 활력

신한투자·SK증권, 블록체인의 글로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3사는 금융 인프라와 Web 3.0 서비스 간 시너지 모색을 위한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토큰증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프로젝트 펄스는 첫 번째 활동으로 조각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해 손쉬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블록체인 전문 테크기업인 블록체인글로벌의 시큐체인(SecuC

hain)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와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3사는 비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조각투자사업자 및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블록체인글로벌은 조각투자 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인프라 및 플랫폼 전체 구축 경험과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젝트 펄스의 참여 기업은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월 구독료 형태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인프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한 토큰증권 계좌관리시스

템을 구축하고, 발행부터 청산까지 토큰증권 업무 전반을 경험한 증권사다. 내재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자산 상품 구조화부터 계좌 관리, 미러링(분산원장 및 증권사 등 계좌에 증권 소유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규제 대응 지원 등 사업자 맞춤형 원스톱(One-stop)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펄스는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가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을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과 같이 프로젝트 펄스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싱가포르투자청과 JP모건 등 다수의 금융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협력한 자산토큰화, DeFi(탈중앙화 금융) 검증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펄스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블록체인글로벌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왼쪽부터) 정지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지난해 우수 투자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거래소 선정... 시상식 개최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证권을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IB 선정 및 시상식'을 개최한 뒤

우수 IB로 미래에셋证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기여도와 기업공개(IPO)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더불어 선정 취지에 대해서는 IPO 우수 대표주관회사 선정·포상을 통해 IB의 신규 상장기업 발굴 유도 등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